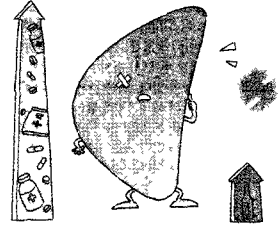




## 간장병과 관련된 질병들



### ♣ 간장과 위장병

간기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증, 포만감 및 구토 등이다. 이것은 간에서 담즙이 나와주지 못하여 소장에서의 음식분해에 장애를 주기 때문이다. 간경화 환자의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발병률이 일반인 보다 5-10배 더 많다. 이것은 내시경 진단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유는 간경화 환자의 문맥 확률이 상승하여 위의 점막에서 혈액이 울체되고 위점막의 정맥순환이 순조롭지 못할 때 위벽에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좋지 않아서 위나 십이지장 점막에 저항력과 방어능력이 약화되어 발병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가스 자극에 의하여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위산과다 등의 증상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간기능이 떨어져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서 오진하여 위장병으로 진단하고 위장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기능과 위장 및 소화기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 간장과 당뇨병

간경변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것은 간장이 당뇨의 대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다만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며 그로 인하여 간장에 지방이 차게 되어 지방간이 되고 이것이 지나쳐 간경화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간경화증의 말기에 간장이 저하되어 당분화 대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는 심한 간경변증으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된다든지 하여 당뇨병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경화증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뇨병은 간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도 간염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임상을 하면서 자주 보아오는 것은 간경화 환자에게 인터페론의 치료를 무분별하게 하여 당뇨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경우이다. 인터페론이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하나이다. 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는 한편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세포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능력을 높여준다.

이와 같이 간경화 환자에게 의사의 적당치 못한 처방으로 인한 인터페론 투약이 원인이 될 때 간경변 증상도 악화되고 없던 당뇨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간경변 자체가 당뇨는 합병증을 발시키는 것은 아니고 간경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페론 투약에 의한 약성분이 당뇨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 ♣ 간장과 심장병

간경화증이 장기간 계속되면 심장근육에 손상을 초래하여 삼전도 검사시에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간장의 해독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신진대사의 유독물질이 환자의 체내에 축적될 때 더욱 심장근육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간경화증 말기에는 가끔 심장검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간장속에 있는 정맥혈관 내의 혈액은 하대정맥으로 흘러들어가서 바로 심장의 우심방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심장병 환자라면 우심방에 혈액이 정체되고 다시 하대정맥으로 혈액이 응혈되어 간장의 정맥혈액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간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간세포가 파괴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를 심장성 간경화증이라 한다

이때의 증상은 얼굴이나 손등이 붓고 숨이 가빠지며 가스가 차고 포만감이 온다 또 복수가 차고 황달이 나타나면 간장치료부터 하는 것보다 우선 심장을 치료한다. 심장이 좋아지면 간장은 자연히 회복하게 된다

### ♣ 간장과 신장병

일반적으로 많은 임상실험에서 간장기능이 매우 악화되면 신장기능도 악화되어 머지않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아왔다. 간기능 약화시 신장기능에 까지 무리를 주게 되며 치료하며 간기능이 회복되면 신장기능도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상당히 악화되면 소변의 생산량이 적어지면서 다시 그 기능을 정상보다 양호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간장병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신장병이 발병되어 간장질환을 유발시키기보다는 간경변 등의 간장질환으로 인한 노폐물을 제대로 해독시키지 못할 때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순물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이치이다.

### ♣ 간장과 빈혈

간장기능이 악화되는 초기증상으로 가슴의 두근거림, 눈의 피로, 거친 피부, 근육경련, 현기증, 두통, 빈혈, 불면증 등이 나타나면 이것은 간기능 저하로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극중성 간염이 악화되면 반응이 늦어지고 대담도 늦어지며 잠을 자려 하고 의식이 흐려진다

간경화가 악화되어 흥분이 되면 팔다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소리도 내며 신음하다가 나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을 간성혼수라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급속하게 파괴되는 간장의 체내 신진대사를 통해 생성되는 유독물질이 해독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뇌세포가 손상되어 의식이 흐려지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